

사회

# 어린이날 부끄러운 자화상

5일 95돌 어린이날을 맞았다. 하지만 광주지역의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입양할 곳이 없어 보육원으로 향하는 영아들도 급증하고 있다.

학대받는 아동의 절반 이상이 학교 부적응 또는 일탈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입양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학대 3년 연속 늘어=4일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29건으로 전년 197건에 비해 16.2%가 증가했다. 지난 2008년 160건에 비해서는 무려 43.1%나 쏠 났다.

## 작년 광주 아동학대 229건 전년보다 16% 늘어 일시보호아동 국내입양 극소수... 보육원행 급증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양육여건이 결핍된 한부모 가정의 아동학대가 36.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도 64건으로 28%나 됐다. 학대 행위자 중 친부와 친모의 비중이 각각 89명(38.9%), 42명(18.3%)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가정 내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에서도 52건(22.7%)의 집단아동학대가 있었고, 입양가

정에서도 2건(0.9%)이 발생했다. 학대받은 229명의 아동 중 50.7%인 126명이 거짓말, 반항, 도벽, 가출, 주의 산만, 학교 부적응 등이 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안돼 보육원으로=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 의하면 지난해 입소한 영아는 85명이며, 매년 80~90명 가량이 보호소를 거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아 85명 중 국내입양은 16명 밖에 되지 않았으며 보육원 등 다른 시설에 맡겨진 영아는

44명이나 됐다. 나머지는 친부모나 친척들에 의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다.

이 같이 입양률은 매년 17~18%에 불과하지만 보육원으로 가는 영아는 2007년 14명, 2008년 17명, 2009년 35명, 2010년 44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광주영아일시보호소 관계자는 "일시보호소에서 버려진 영아들의 친부모를 어렵게 찾아내도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들의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꼴찌'

### 3년 연속 최하위 교육성취도는 1위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3월~4월 공도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6천 410명에게 '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발인 설문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올해 집계된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5.98점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OECD가 각각 2006년과 2003년에 실시한 똑같은 내용의 조사 연구와 비교 분석했을 때 OECD 23개국 중 최하

점수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스페인(113.6점)보다 47.6점 낮고, OECD 평균(100점)에선 34점이거나 모자란다. 한국 다음으로 낮은 헝가리(86.7점)와도 20점 이상 차이가 났다.

또 한국은 2009년 64.3점, 지난해 65.1점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OECD 국가 가운데 주관적 행복지수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반면,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교육성취도와 생활방식을 측정하는 '교육·행동과 생활양식' 항목에서는 최상위를 기록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일하게 주관적 행복지수에서만 꼴찌다.

'교육'에서는 127.8점, '행동과 생활양식'에서는 129.3점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나원침 (8307) 김종두



## 지역 명품 인증업체까지 원산지 위조

### 완도해경, 중국산 미역 33t 국산 둔갑 유통업체 적발

완도해양경찰청은 4일 중국산 미역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하려던 완도 모 물산 대표 A(56)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검야 조사를 중이다.

특히 A씨는 전남도지사가 추천하는 '남도미향'이라는 전남도 명품식품 공동브랜드 취급 업체 자격을 갖

춘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께 완도군 완도읍 소재 자신의 업체 공장에서 중국산 염장미역 33t을 수입한 뒤 이가운데 일부를 '완도산 마른미역'으로 표기된 상자에 담아 불법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미역값이 오른 데다가 중국산 미역의 가격이 국내산에 비해 20% 가량 저렴하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원산지 허위 표시 제품 유통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마른미역 완제품 100상자를 압수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호기자 ejchung@



### 지진 대피 이렇게

고 있다.

4일 오전 11시 국민 지진대피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광주시 남구 대성초등 6학년 학생들이 수업 도중 지진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자 황급히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

/김진수 기자 jenas@kwangju.co.kr

### 재범 위험 아동 성범죄자 7월부터 약물치료 받는다

오는 7월부터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아시아에서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약물치료 범범은 지난해 7월23일 제정돼 1년의 유효기간을 거쳤으며 적용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면 7월24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 방과후 강사 채용 비위 교장 직위해제

#### 광주시교육청

광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명절 때 인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감사를 벌여 남구 효덕초등학교 A교장이 지난 3

월 음과 과목 방과 후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체 기준과 다른 가산점을 부여해 특정 응시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직위해제 했다.

A교장은 또 지난 2009년부터 명절 때 방과 후 강사와 일반 교사들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마트 주차장 임신부 납치 강도범 징역 2년6월형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배)는 4일 대형할인유통매장 지하주차장에서 임신부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정모(3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대형마트 2층 주차장에서 쇼핑을 하고 귀가하려는 임신부 A(30)씨를 흉기로 위협해 반지와 목걸이, 현금 5만원 등 9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지리산 산행하다 산삼 83뿌리 횡재

#### 상나팔

경남 밀양에 사는 정모(46)씨는 지난달 29일 부인과 함께 지리산 산행에 나섰다. 하산 길에 산삼 83뿌리를 캐는 횡재. 정씨는 이 가운데 28뿌리를 주변에 나눠줬으며 나머지 55뿌리를 한국산삼연구협회에 감정 의뢰했는데 이들은 15~30년생으로 추정되는 야생 산삼이고 감정가는 5000만원.

정씨는 "산행 전날 밤 아내가 시부모가 돌아가시는 꿈을 꾸고 울면서 잠에서 깬다"며 "산삼을 팔아서 시골 독거노인을 돌겠다"며 싱글빙글.

/연합뉴스

### 스쿠터 타고 40분만에 여성 3명 성추행 오토바이로 추격한 피해자 남편에 덜미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40분 동안 총 3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20대가 마지막 범행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뒤쫓은 피해 여성의 남편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지난 3일 늦은 새벽까지 친구와 함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서 소주를 마신 송모(28)씨. 오전 7시가 넘도록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잔 송씨는 자신의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다.

오전 7시50분께 남구 월산동 모

중학교 앞에 도착한 송씨는 길을 걷고 있던 최모(여·20)씨 앞에 스쿠터를 세웠다. 최씨가 화들짝 놀라 송씨는 그녀의 가슴을 만진 뒤 스쿠터를 타고 도주했다. 10분 후 서구 화정동으로 넘어온 송씨는 등교중이던 여고생 이모(18)양을 발견하고, 다시 성추행을 한 뒤 스쿠터를 타고 도망쳤다.

세 번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송씨. 그는 오전 8시30분이 되자 화

정동 한 골목길에서 출근을 하던 장모(여·25)씨의 몸을 더듬고, 또 다시 스쿠터를 타고 쫓돌았다.

그러나 송씨는 아내의 비명소리를 들은 장씨의 남편(25)이 집을 뛰쳐나와 스쿠터 배기량 50cc 보다 2배가 넘는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10분간 추격하자 골목길에서 넘어지면서 붙잡혔다. 당시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지 수치.

광주서부경찰은 4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송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 스마트한 바로 지금! 세상이 열린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ALL-IN-ONE SERVICE** (올인원서비스)

오프라인 지면광고에 수록된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고 또한 번외정보 어플을 통하여 번외정보 검색이 가능한 효과적 홍보방법으로 고객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한국전화번호부의 새로운 온,오프라인 통합서비스입니다.

올인원 서비스 상담 문의 : (062) 514-1144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  
KOREA TELEPHONE DIRECTORY CO., LTD